

하멜標流記의 科學史的 意義



韓 相 復

(前海洋開發研· 先任研究員)

4. “하멜 표류기”의 출판

우리가 “하멜 표류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은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쓴 견문록이 아니고 태풍으로 제주도에 표착하여 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진 표류자들의 불행했던 13년동안의 억류생활에 대한 회고록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불가항력의 자연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었으며 틈만 있으면 탈출을 기도했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게된것도 사실이다.

이 책의 원고를 쓴 하멜은 평범한 네델란드의 선원이었고 그가 조선에서 보낸 13년간 노예생활의 전달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네델란드를 중심으로한 서양에서는 새로운 지리학상의 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알지못하는 세계에대한 여행담과 모험담에 심취되어 있었다. 하멜이 쓴 보고서의 제목은 “Sperwer호의 살아남은 간부 및 승무원들이 1653년 8월 16일 제주도(조선왕의 지배하에 있는)에서 배를 잃을때부터 1666년 9월 14일 생존자중 8명이 일본 나가사키로 도주할 때까지의 일기. 이 기간중 조선에서 겪은 경험담, 조선사람들의 풍습 및 조선의 정세”이다. Sperwer는 네델란드 말인데 영어로는 Sparrow Hawk로 참새와 독수리를 합한말이며 하멜일행

이 탔던 무역선 이름이다.

하멜의 원고가 어떤경로로 출판업자에게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1668년 즉 조선에서 억류생활을 하던 표류자의 제 1진이 암스텔담에 도착한 해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반 벨센(Jacob van Velsen)이 펴낸 1668년의 암스텔담판은 하멜이 붙인 제목을 윤색하여 “1653년 바타비아를 출발하여 대만과 일본으로 향했던 Sperwer호의 불행한 항해일기 이배는 폭풍을 만나 제주도에 좌초 한다. 64명중 36명만이 살아 남았으며 이들은 섬의 야만인들에 의하여 억류당한다. 이들은 다시 배편으로. 현지 주민들이 조선국이라고 부르는 코레(Coeree 왕국으로 이송되어 야만인들 속에서 13년 28일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된다. 그동안 16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죽었으며 8명이 작은배를 타고 1666년에 탈출했고 8명은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 이들은 1668년에야 조국에 돌아오게 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Sperwer호의 서기였던 호루쿰사람 헨드릭 하멜이 서술한 것이다” 라고 고쳐졌다. 당시의 출판업계에서는 판매성적을 올리기위해서 내용을 요약한 말로 책 이름을 지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레 책이름이 길어졌다. 암스텔담판은 두가지가 별도로 인쇄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목이 시사하는것 처럼 연대순으로 된 일기만 수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에 관한 서술이 빠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에 스티히테르(Johannes Stichter)가 펴낸 로테르담판은 조선왕국에 관한 서술을 책이름 속에 더 포함시키고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일기 다음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해에 사그만(Gillis Joosten Sargman)은 현존하는 하멜의 원고를 그대로 따라서 조선왕국에 관한 서술을 이야기 전체속에 삽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상상적인 삽화를 그려넣었으며 원고에도 없는 악어애기도 사족으로 붙였다.

하멜의 표류기는 곧 이어 1670년에 미누톨리(Minutoli)에 의하여 佛語로 번역되었는데 스티히테르의 편집체재를 따르고 사그만의 책도 함께 참고하였다. 1671년에는 독어판이 출판되었으며 1704년에 처칠(John Churchill)은 미누톨리의 불역본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 영역본은 1704년 초판이 나온이래 영문판의 표준이 되어왔으며 미누톨리의 불역본 스티히테르판 및 사그만판의 혼합체로 불리워지고 있다.

네델란드의 세력이 쇠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영국과 불란서는 19세기 중반까지 유일하게 조선을 소개하고 있는 이 하멜 표류기를 여러차례에 걸쳐 重刊을하고 또 새로운 주석을 붙여 출판을 거듭하였다. 1813년에 출판된 버니(James Burney)판이 하나의 좋은 예이다.

1920년에 네델란드의 회팅크(Hoetink)는 하멜 표류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완전한 책을 편찬하였으며 1971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야드(Gari Ledyard)는 비판적인 눈으로 “하멜 표류기”를 재구성 하였다.

“하멜 표류기”의 본 고장인 우리나라에 이것이 널리 알려지기는 1918년이 처음이다. 최남선은 그가 주관한 청소년 계몽잡지인 靑春 제 14호(1918년 6월)에 “250년전 화란인 헨드릭 하멜 조선일기-36인의 14년간 압류실록”이라는 제목으로 35페이지에 달하는 抄譯을 전제하였는데 서문에 이어 제 1장 조선에서 파선함, 제 2장 고마운 조선 선원(총독 즉 제주牧使의 오역), 제 3장 제주도에서 지내던 경력, 제 4

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行함, 제 5장 서울서 감함, 제 6장 南海가서 고생하던 사정, 제 7장 일본으로 도망함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王立 亞細亞學會 朝鮮支部에서도 같은 해인 1918년 同會報 第九卷에 트롤로프(Mark N. Trollope) 신부의 서문과 함께 처칠의 1704년 영역판을 그대로 수록하였다(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Isle of Quelpaert, Together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1927년에는 당시의 京城帝國大學 교수 小倉進平이 “헨드릭 하멜의 朝鮮漂流記”라는 제목으로 京城日報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연재하여 번역 소개한바 있다.

이병도박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史料를 인용하여 譯註를 붙여가면서 하멜표류기를 1934년-1935년에 걸쳐 진단학보 제 1권-제 3권에 번역 소개하였으며 博文書館에서는 이들을 함께 모아 98페이지에 달하는 문고판으로 간행하여 널리 알렸다. 이 문고판은 “하멜 표류기(蘭船濟州島難破記及朝鮮國記)”라는 제목으로 譯者의 序와 蘭船濟州島難破記, 朝鮮國記 및 부록으로 하멜일행과 벨트브레에 관한 조선측 기록과 일본측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하멜일행의 표류와 관계되는 자료로 李仁榮은 1935년에 “南蠻人 朴淵攷”를, 中村榮孝는 1936년에 “蘭船의 朝鮮漂着者와 日鮮의 交涉”을 發表하였다.

一潮閣에서는 이병도박사의 초기 번역을 약간 수정하여 “하멜 漂流記”를 1954년에 重刊하였으며 베르날(Bernard)이 1732년에 펴낸 北洋航海記集 第四卷에 수록된 미누톨리의 佛譯本과 1813년 버니의 英譯本을 영인하여 수록하고 있다.

日本の 生田滋는 회팅크가 쓴 1920년 네델란드본을 日譯하여 “朝鮮幽囚記”를 1961년에서 1965년에 걸쳐 朝鮮學報 第一卷 - 第三卷에 연재 발표하였다.

1971년에 王立 亞細亞學會 韓國支部에서는 레드야드 교수의 저서 “The Dutch Come to Korea, An account of the Life of the

First Westerners in Korea (1653-1666)”을 英文으로 펴냈는데 레드야드 교수는 전체를 두편으로 나누어 第一篇에는 朝鮮에 표류한 韓人을 다루고 第二篇에는 序와 함께 韓人의 英譯本을 수록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제 1 편에는 序言에 이어 제 1 장 難破, 제 2 장 異域에서 만난 同胞, 제 3 장 서울로 移途되다 제 4 장 서울生活, 제 5 장 淸使事件, 제 6 장 全羅道の 貴양살이, 제 7 장 脱出, 제 8 장 日本의 介介, 제 9 장 에필로오그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부록 I 에는 韓人의 著書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을 썼으며, 부록 II 에는 韓人일행에 대한 日本側 審問調書를 수록하였다. 레드야드 교수의 저서는 三中堂에서 朴允熙의 번역으로 譯者의 解説과 함께 1975년에 “하멜 漂流記-朝鮮王國 見聞錄-”이라는 이름의 文庫版으로 출판하였다.

이병도 박사는 다시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가 1884년에 저술한 “Corea, Without and Within” 속에 수록한 “Hendrik Hamel’s Narrative of Captivity and Travels in Corea, Annotated”를 底本으로 하고 佛譯本과 다른 영역본들을 함께 참조하여 改譯하여 1975년 一潮閣에서 “蘭船濟州島難破記-附 朝鮮國記-”를 펴냈는데 譯者 序에 이어 蘭船濟州島難破記에서는 韓人들의 難破, 親切한 朝鮮의 總督(牧使), 濟州島에서의 體驗, 首都에의 旅程, 서울에서의 捕虜生活, 南邊에서의 生活 日本으로 逃亡 等の 순서로 기술되었다. 朝鮮國記에서는 朝鮮王國의 自然과 人民, 刑罰 道德 祭典 및 寺院, 家庭生活 家屋 婚姻 教育 및 喪葬, 國民性과 習俗 度量衡 文字 王國과 使節 등으로 分類하였다. 韓人일행과 벨테브레에 관한 朝鮮側 및 日本側 史料와 함께 미뉘뜨리의 佛譯本과 그가 正本으로 쓴 그리피스 著述에 있는 韓人의 英譯本도 영인하여 실었다.

5. 하멜 漂流記의 科學史的 意義

하멜 一行이 우리나라에서 13년동안 억류당하여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것을 그대로 소박하게 묘사한 책은 서양에서 經

證적으로 출판되어 그때까지 전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서양사람들에게 새로운 知識을 보급하고 나아가서 1668년이내 200년여동안 이 작은 책은 우리나라에 關於하여 알고자 하는 서양인에게는 유일한 知識源이 되었다. 唯一한 것이기 때문에 쓰여진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안내서가 되었고 서양인들의 朝鮮觀을 형성시킨 뿌리가 되었다. 하멜이 관찰한 것 中에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것도 있고 불쾌한것도 있으며 정확하지 못한 대목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觀點이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서양인으로서 는 하멜의 著述이 13년동안의 생생한 생활기록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

하멜 표류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섬 또는 반도로 추측하여 그려넣던 지도 製作者들이 하멜의 기술에 의하여 장방형의 반도로 확정시키고 위지도 북위 34°로부터 44° 사이에 넣고 있으며 일본과의 距離를 約 80마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的 위치역시 하멜일행이 측정한대로 북위 33.5°로 하였으며 그 명칭이 Quelpaert로 고정되었다. 하멜은 우리나라의 남북 길이 450 마일가량이고 동서의 폭은 220 마일로 북위 34°에서 44°에 위치하며 西로는 바다로 中國과 떨어져 있고 東南으로 日本과 매우 가까와 단지 80마일밖에 안되고 그 사이에는 대마도가 있다고 했다. 북쪽으로는 길고 높은 산맥으로 연결되어 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써서 반도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東北쪽은 大洋으로 限界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매 년 고래가 많이 잡히고 청어도 겨울철에 많이 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멜 일행이 처음 漂着한 제주도 的 西南端 해변에서 1653년 8월 18일 측정한 위도는 우리나라에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世宗代에도 三角山에서 측정한 北極高度가 나와있고 백두산 韓山 마니산에 曆官을 보내어 高度를 측정했다는 기록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實用化 되지는 못했다. 현재 제주도 서남단에 있는 모슬포 해변의 위도가 33° 12' N 인데 난파선 的 一等航海士가 측정한 값은 33° 32' N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기술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값이다.

1787년 5월 20일에 朝鮮近海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도 남단에 접근한 불란서의 라페루즈 공작은 그의 항해기에 제주도(Island of Quelpaert)를 “네덜란드 상선 Sparrow Hawk호의 난파로 유럽에 알려진 이 섬은 조선왕의 지배하에 있고 불행하게도 조선에서는 모든 외방인과 어떤 통신도 금지되어 있으며 그나라에서는 그들의 해안에 좌초된 불행한 사람들을 노예로 고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Sparrow Hawk호에 탔던 승무원들이 끄림을 받으며 포로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일이 있어서 제주도 해안에 보트를 보내어 상륙시킬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La Perouse, 1798)고 기록하고 있다.

La Pérouse의 제주도대 대한 기록은 1845년 6월 25일 牛島에 도착한 후 1개월에 걸쳐 제주도와 거문도등을 정밀히 측량한 영국의 Belcher(1848)가 그의 항해일지에 다시 인용하고 있다.

“Corea, the Hermit Nation”을 저술한 Griffis는 정치와 사회편에서 하멜의 기록을 9번이나 인용하고 있으며 19세기말의 조선형벌이 표착당시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에 든 몇가지 예에서 처럼 하멜 표류기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서양 사람들이 첫번째로 참고하는 사전 준비물이었으며 유일한 지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우리나라 밖에서 더욱 그 가치가 2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인정되어왔다. 그들은 하멜표류기를 읽고 우리나라 사정을 파악한 다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멜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평하여 朝鮮人 절도의 버릇이 있고 또 사기와 거짓말을 잘하여 도무지 신용할 수 없다고 기술한것이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先入觀이었고 이 선입관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잠재적으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흔히 느낀다.

하멜이 조선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의에 찬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우리 생활에 호감을 가지고 우리문화를 이해 하려는 입장을 취한것이 아니고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서 항상 탈출의 기회만을 엿보아 왔기때문에 더욱 고된 생활을 하였고 조선사회에서는 그들을 백안시 하였다. 하멜 일행이 조선사회에 융화되었다면 그들은 사람대접을 받게되고 박연처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멜의 표류기는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멜의 사건기록들은 설명이 너무 간략하기는 하지만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 여러가지 史料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억류생활을 한 시기는 그들에게도 불행하였고 조선측에도 불행한 때이었다. 그러므로 하멜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속에서 가장 어려웠던때를 관찰하였으므로 참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하지 못하고 그늘진 모습만을 알렸을 뿐이다.

하멜 일행이 표류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 정부는 전통적으로 표류인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써 왔다. 표류자들을 후대해주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필요한 교섭이 끝난 뒤에는 각자의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이 상례이었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겪은 직후에는 예외적인 정책을 취하였으며 특히 孝宗의 在位기간(1650-1659)에는 北伐을 위한 전쟁준비 태세에 있었으므로 비밀 유지와 함께 표류자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兵器를 제조하기위해서 송환은 금지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불행하게도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착하였던 것이다.

조선정부에서는 1627년에 표착한 박연을 상당히 우대하였고 박연도 조선 정부를 위해 공헌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하멜 일행을 서울로 데려와 후의를 베풀면서 이들의 기술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협조를 거부하면서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므로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겼다. 게다가 1655년 4월 21일 淸使事件이 있는 후 죄인취급을 하여 全羅道로 이들을 귀양보냈다. 조선정부에서 취한 이들에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하였고 또 귀양살이에서도 많은 자유를 주었지만 하멜 일행으로서는 고난의 시기였고 험벗은 당시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라서 국고는 피폐할대로 피폐했고 백성들도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다가 흉년으로 굶주리던 때였는데 北伐준비를 은밀히 진행하느라고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멜 일행이 억류되었던 기간에 그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오히려 구걸생활에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게되었고 탈출을 위한 자금을 모으게까지도 되었다. 따라서局外者로서 하멜이 관찰하고 묘사한 조선사회는 불행히도 조선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西洋人에게는 좋게 인식되어 질수 없었다.

〈참고 문헌〉

李丙壽(譯註) 1940. 하멜 漂流記(蘭船濟州

島難破記 及 朝鮮國記) 서울. 博文書館

李丙壽(譯註) 1954. 하멜 漂流記 서울 - 潮閣

李丙壽(譯註) 1975. 蘭船濟州島難破記-附 朝鮮國記- 서울 - 潮閣

崔南善(抄譯) 1918. 250년전 화란인 헨드릭 하멜 조선일기-36인의 14년간 압류실록 青春 第14号

Belcher, Edward 1848. Narrative of the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 - 1846, Vol 2, P 452. London.

Ledyard, Gari, 1971. The Dutch Come to Korea, An account of the Life of the First Westerners in Korea (1653-1666).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Monograph Series No. 3. (朴允熙譯 하멜 漂流記-朝鮮王國見聞錄-1975. 서울. 三中堂)

La Pérouse, Comte de (Jean Francois de Galaup). 1798. The Voyage of La Pérous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1785, 1786, 1787 and 1788, Vol. 2, P 15. London.

Ricci, Aldo 1931. The Travels of Marco Polo London (黃義順譯東方見聞錄, 1978. 서울. 東西文化社)

國論이 하나되면

國土도 하나된다